

2011년 일본기업의 對韓투자구조와 시사점

작년 일본 기업의 對韓 투자 증가에는 대지진 요인이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음. 그러나 앞으로 단순 리스크 분산 차원만이 아닌, 지산지소 전략 등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을 염두에 둔 다목적 전략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이전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,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의 일본 기업 투자유치 정책 검토가 요구됨

□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건수, 금액 모두 작년보다 증가

- 2010년 대비 건수로는 13.1%, 금액으로는 9.9% 증가

<업종별 일본 기업의 對韓 투자(2010~2011)>

구 분	2010	2011	
	금액(백만달러)	금액(백만달러)	증감율(%)
농·축·수산·광업	0.4	-	-
제조업	1226(58.9)	1265(55.3)	3.2
식품	1.6	23	1338
섬유·직물·의류	2.2	6	172
화학	379(18.2)	657(28.7)	73.3
의약	25	8	-96.8
비금속광물	91	109	19.8
금속	21	51	142.8
기계장비	180(8.6)	100(4.4)	-44.5
전기전자	519(24.9)	256(11.2)	-50.7
수송기계	6	54	800
서비스	853(40.9)	995(43.5)	16.7
전업종	2083(15.9)	2289(16.7)	9.9

*()내는 외국인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

자료 : 지식경제부

□ 제조업 비중은 낮아진 반면, 서비스 비중은 높아짐

- 제조업 비중은 58.9%에서 55.3%로 저하된 반면, 서비스업 비중은 40.9%에서 43.5%로 증가

□ 화학산업, 일본 기업의 최대 투자 업종으로 부상

- 제조업 가운데 2010년 일본 기업의 투자규모 2위였던 화학분야의 對韓 투자가 급증하여 2011년에는 최대 투자 업종으로 부상
- 반면, 2010년 일본 기업의 투자규모 1위였던 전기전자분야의 對韓 투자는 크게 감소하여 2위로 밀려남
-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소재·부품·자본재 내에서의 순위가 부품>소재>자본재에서 소재>부품>자본재로 바뀌어,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재산업분야에서의 일본인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을 시사

□ 일본의 對韓투자 증가에 지진요인은 크게 기여하지 못해

- 對韓투자가 증가된 일본 측 요인으로 지진 이전에는 주로 환경규제, 일본의 높은 법인세율, 현지의 관세장벽 등이 해외이전 요인으로 작용
- 지진 이후에는 서플라이체인 리스크, 전력 문제, 해외기업의 요청, 방사능 피해 등이 가세하였으나 이런 요인들이 對韓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기여는 크지 않았음

□ 對韓투자가 증가된 한국 측 요인

-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 증가요인은 ▷한국시장의 규모 확대, ▷한국의 FTA 체결 확대를 활용한 수출증대 모색, ▷경쟁력 있는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활용 등임
- 한국시장의 규모 확대
 -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 등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
- 한국의 FTA 체결 확대를 활용한 수출증대 모색
 - 한국이 미국, EU 등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, 일본 기업은 FTA 체결국간 관세철폐를 수출증대의 호기로 삼기 위해 對韓투자를 확대
- 경쟁력 있는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활용
 -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24%로 일본(약 40%)보다 낮고, 전력요금은 50% 저렴하고, 인천공항, 부산항 등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음

□ 한국의 투자환경에 관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평가

- 최근 일본기업의 對韓투자가 확대되고는 있으나, 전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 여건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님
- 일본 국제협력은행(JBIC)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, 한국은 중기적(향후 3년 정도) 유망사업 전개 국가 순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남

-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 이유는 시장의 향후 성장성, 시장의 현재 규모, 산업 집적, 우수한 인재,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등에 주목

□ 對韓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

- 일본국제협력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對韓투자의 과제로서 여전히 타사와의 치열한 경쟁, 노동비용 상승, 노무 문제, 관리직급의 인재 확보 곤란, 과제 강화 등을 지적
- 한편, 일간공업신문은 對韓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로 ▷일본기업의 기술유출 우려, ▷한국 원화의 넓은 변동 폭을 지적
 - 일본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
 - 일간공업신문은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이 높은 일본기업의 기술이전이 목표라고 지적
 - 부품소재산업의 한국 진출 가속으로 반도체, 가전제품에서 유발된 기술유출로 인해 일본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재현될 우려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
 - 한국 원화의 넓은 변동 폭
 - 한국 원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, 환율 변동 폭이 너무 커서 對韓 투자 시 우려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
- 이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감안할 때 환율변동, 세계경기변동 등의 요인으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경우, 일본기업의 對韓투자는 또다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

□ 일본제조업 33개 투자사례 분석 결과

- 100% 자회사형태의 직접투자도 있기는 하나, 한일 기업간 합작투자가 대다수임. 합작투자는 직접투자나 M&A와는 달리 기업간 제휴의 일종으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모두의 제휴동기를 반영한 것임
- 신규투자 외에, 재한 현지법인 등 이미 투자된 일본 기업을 통하여 생산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한 투자도 보이고 있음
- 일본기업의 투자 동기나 목적은 크게 무역코스트 절감이나 현지수요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對韓투자와, 생산요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對韓투자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- 최근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특징으로는 종래의 수직적 투자 중심에서 수평적 투자 또는 수평적 투자와 수직적 투자, 양자가 혼합된 투자사례가 늘고 있음
- 일본 투자기업의 판매처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저렴한 양질의 생산요소 확보에 의존한 수출이 주종을 이루었으나, 최근에는 한국 시장 특히 국내 대기업의 대형수요 확보, 한국의 FTA 확대에 따른 수출부대비용 감소에 주안점을 둔 한국 시장 판매나 수출부분이 커지고 있음

□ 시사점

- 2011년 일본 기업의 對韓투자 확대에는 지진 영향이 직접인 기여하지는 못했음

- 지진과 태국 홍수 피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생산거점의 분산차원에서 일본이나 태국으로부터 제 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한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분산사례는 발견되지 않음
- 지진을 계기로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 차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생산 이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,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
- 우리는 일본 기업들이 대지진을 계기로 단순히 리스크분산 차원만이 아닌, 자산진소 전략 등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을 염두에 둔 다목적 전략으로 해외이전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,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정부의 일본인 직접투자 유치정책에 관한 재검토가 요구됨
- 이와 관련, 일본기업의 투자유형으로 최근 다양한 동기나 목적과 연계된 수평적인 직접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, 그리고 여기에 서플라이체인의 재구축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기업의 분산전략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

〈참고자료〉

- 지식경제부, '외국인투자통계'
- 한국무역협회, '최근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동향, 2011.12.19
- 일본 일간공업신문 등 언론 보도자료 및 각 사 발표자료 등